

선교 편지 (2022년 9월)

-고동욱 고사라 선교사(일본)-

혼고다이 그리스도 교회

저희부부는 혼고다이 그리스도 교회 패밀리라는 셀그룹을 지난 2년 동안 선교사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온라인이나 대면으로 만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모두 미혼 그룹이었는데 이제는 대부분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중 가정은 딸아이를 한 가정은 내년엔 아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 같이 하게 되어 이제는 어느덧 어려운 일들을 같이 나누고 기쁜 일들은 같이 축하하는 가족과 같은 가까운

관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두 가정이 이사를 하게 되어서 이사를 돕고 축복하며 친교를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안에서 더욱 성숙해져 가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주위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본은 여름페스티벌(나쓰마쯔리)이 여름 내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있습니다. 혼고다이 그리스도 교회는 여름동안 두번의 여름축제를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VBS를 앞두고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혼고다이역 앞 광장과 노아학교 운동장에서 여름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YWAM Yokohama Staff



어른들이 게임이며 크래프트, 스낵 그리고 찬양을 즐기는 모습을 보는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아이스크림을 나누어주고 팝콘도 만들어 나누어 주는 봉사를 통하여 모르던 교회분들과도 교재를 하게되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또한 8월중순에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페스티벌겸 바자를 진행했습니다. 혼고다이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 일본에 들어온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장기적으로 일본에 잘 정착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난민들이 교회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수 있기를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아 인터네셔널 학교

사라 선교사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노아학교학부모님 중 믿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공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아학교가 크리스찬 학교라 부모님들중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학중에는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며 교재하는 시간도 갖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두분의 어머니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올해 안에 세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 가정은 초등학교 아이도 받을 예정이라 남편분도 마음이 열려서 한 가정이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중입니다. 이 성경공부 모임이 더 많은 학부모님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7월중순부터 8월한달 동안 노아학교 여름방학이였습니다. 그 동안 바빠서 초대하지 못했던 주위 사람들과 노아학교 아이들도 집에 초대하고 교재하는 시간을 많이 갖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지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집에 초대해 같이 밥을 먹고 교재를 나누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사역중에 하나입니다. 다행히 한국음식이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한국음식을 만들어 주면 다들 좋아하고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을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그리고 교재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해마다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서 노아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할수 있는 더 넓은 공간을 위해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제목은 작년에 교사들과 학생들이 같이 받은 학교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35 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이 학교를 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건물과 재정적 후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 학교를 통해 하나을 알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재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YWAM 요쿠하마

베이스가 시작한지 어느덧 2 년이 되어 갑니다. 힘들고 도전이 되는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올수 있도록 한걸음 한걸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스텝인원도 늘었고 베이스를 통해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하실 비전 또한 더욱 커지고 구체적으로 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9 월 말에는 www.ywamyokohama.org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YWAM Yokohama 를 공식적으로 알리게 되었고 내년 3 월 중순에 있을 Go Japan DTS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또한 열방대학 (University of Nations)에 정식 수업으로 등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웹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베이스에 대해서 그리고 Go Japan DTS 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DTS 는 열방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하는 수업으로 3 개월의 수업과 3 개월의 실습(아웃리치)을 받는 수업입니다. 처음 하는 DTS 라 준비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힘들지만, 그 과정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베이스로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수업을 다양한 나라에서 오실 강사분들이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웃리치는 일본 북단 홋카이도에서 부터 최남단 오키나와까지 다니면서 일본을 위해 기도하며 현지 교회들과 믿음의 공동체들을 돕고 연결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과정은 일본어와 영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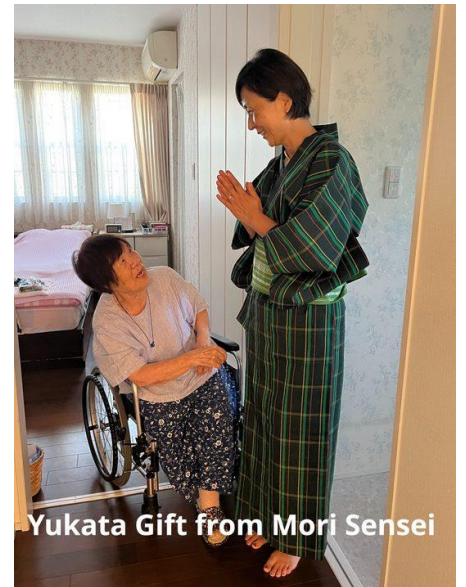
진행이 됩니다. 내년 3 월에 있을 Go Japan DTS 는 이 베이스를 통해 주신 비전의 시작점이라 생각합니다.

Other

- 8 월달에 저희 부부는 일주일 휴가를 다녀 왔습니다. 저희 부부의 결혼 25 주년 기념여행이기도 했습니다.
- 일본을 위한 24 시간 기도모임이 이번에는 11 월 18 일 부터 19 일까지 요코하마 지역의 저희가 섬기는 혼고다이 교회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 YWAM 요코하마 스텝프로 5 월에 일본에 들어온 벤 형제가 도쿄에 있는 교회에 머물다 요코하마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집을 구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어려운데 교인중의 한분이 2 층집을 렌트로 주셨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스텝들이 머물곳 생겼고 이곳에서 베이스 정기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 YWAM 타이페이에서 일본선교에 관심이 있는 자매가 일주일 동안의 방문과 홋카이도에서도 같이 24 시간 기도모임을 준비하는 자매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

- 내년에 있을 DTS (제자 훈련 학교)는 최소 10 명의 학생이 있어야 DTS 를 할수 있습니다. 10 명에서 15 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현지인과 외국인이 반반정도 되기를 기대합니다.
- DTS 를 섬길 스텝프가 더 필요합니다. 영어와 일어가 가능한 스텝프, 그리고 특히 여성 스텝프가 필요합니다.
- 스텝프들도 아웃리치를 자비량으로 가야하는데 재정적으로 잘 채워 질수 있도록.
- 노아학교와 YWAM 요쿠하마 일들을 잘 발란스 있게 할수 있도록
- 일본어 공부에 많은 진전이 있도록



Yukata Gift from Mori Sensei